

조선시대 여성 폐면용 쓰개의 특징 - 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 of Women's Veils in Chosun Dynasty Period -Focusing on the Museum Collection-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류보영 · 임상임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Bo-Young Ryu · Sang-im Im
(2002. 4. 18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women's veils from Chosun period housed in various museums and see how they reflect the escalating inequality between the two sexes based on Confucianism and its social ramifications including the strict rules that kept women from freely communicating or staying in same quarters with men from tender age.

I first visited various museums to see what kind of veils they had in their collections and then looked at reproductions, museum catalogues, and other studie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esigns, colors, and fabrics of the veils in each collection and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1. I looked at 26 veils of 7 different styles both in person and in museum catalogues, and they included 2 Neouls, 3 Myunsas, 12 Jahngots, 4 Chuneuis, 1 Sahkgat, 3 Junmos, and 1 Garima. Various documents attest to the existence of one more style of veil, I. e. skirt-shaped veil, but there was no specimen of the type.

2. Museums had various types of veils for women, but most of them dated from late Chosun period.

3. Female veils in Chosun period had clearly-defined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ir wearers. Each type had its own fabric, color, and form, so one could tell the status of the wearer just by looking at it.

4. The veils that I found at museums around the country had following characteristics: . Neoul was worn by high-class women and it covered up the face better than other types of veils. Myunsa was also called Myunsapo, and it featured brilliant gold foils to mark the exalted status of the wearer. Jahngot was originally a robe for both sexes, but it turned into a type of veil for low-class females in late Chosun period, and there were more Jangots in museum collections than any other type of veils. Chuneui has various styles and it has a cotton lining so low-class women wore it to both cover the face and to stay warm. Sahkgat was worn by low-class women for its convenience. Junmo was elaborately decorated and showy, and it was worn by courtesans. Garima was worn by courtesans or professional women in medicine, and unlike other type of veils, it showed the face of the wearer

Key words: Neouls, Myunsas, Jahngots, Chuneuis, Sahkgat, Junmos, Garima;
너울, 면사, 장옷, 천의, 샷갓, 전모, 가리마

I. 서론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의관(衣冠)을 중히 여기고 그
것을 단정히 하는 것이 습속화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모 또한 다양한 발전을 보였다.

이 중 여성들의 관모는 의식 때 사용했던 장식적인
관모와 폐면(蔽面)을 위한 외출용 및 방한모에 일관되
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시대에 이르러 유교숭상으로

생겨난 사회적 규범과 내외법으로 인하여 외출시 착용하는 여성의 관모인 폐면용(蔽面用)쓰개는 다양한 발전을 하였으며 그의 사용은 절정을 이루었다.

여성의 폐면용 쓰개는 외출시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되었던 여성의 관모로서 생물학적인 측면인 신체 보호상의 요구보다도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함에 따라 남성에게 예측되어진 여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착용되어졌다. 그러나 왕조의 붕괴와 시대적인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 폐면용 쓰개의 착용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현재 몇 점만 되는 유물만이 박물관에 남아 있다. 학계에서는 사라진 여성 폐면용 쓰개에 대한 안타까움을 반영하듯 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문헌적인 고찰에서 여성 쓰개의 변천을 단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중심으로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여성 폐면용 쓰개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우리 나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도록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의 폐면용 쓰개로서 박물관 전시실의 전시품 그리고 도록에 수록된 여성 폐면용 쓰개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은 먼저 각 박물관에 소장된 여성

폐면용 쓰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서 집계한 자료 및 문헌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통신을 통하여 소장량 및 소재 파악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소장 확인이 된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하여 전시 품목의 소장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시 품목 이외의 복원품 및 유물은 박물관 도록을 참조하였고, 여성 폐면용 쓰개에 대한 문헌연구는 기존에 발행된 선행 연구²⁾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전시실의 전시품 및 도록에 수록된 여성 폐면용 쓰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확인 할 수 없는 소장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유물 현황은 <표 1>과 같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쓰개의 전래

여성이 외출 시 타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풍속은 오래 전부터 중근동, 유럽, 중국 등에서 널리 퍼져 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여성이 외출 시 얼굴을 가리웠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흥덕왕(興德王) 9년에 하교한 복식금제(服飾禁制) 중에 표(縗)가 나타나는데 표는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천으로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늘어

<표 1> 박물관 소장 여성 폐면용 쓰개의 현황

종류	너울(羅兀)	면사(面紗)	삿갓	장옷(長衣)	전모(髻帽)	차액(遮額)	천의(鷹衣)	계
경기도 박물관	1점							1점
고려대 박물관		1점		1점	1점			3점
담인복식미술관		1점						1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점	2점	2점		1점	6점
세종대 박물관				2점				2점
숙명여대 박물관				1점		1점	1점	3점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				1점				1점
은양민속박물관				2점			2점	4점
이화여대 박물관		1점		3점				4점
창덕궁 박물관	1점							1점
계	2점	3점	1점	12점	3점	1점	4점	26점

뜨려서 중국 당대 여인도에서 많이 보여지는 영포(領布) 혹은 영건(領巾)과 동일하였으며 근대 여인들이 많이 애용했던 숄(shawl)과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흥왕 2년에 김춘추로 하여 당으로부터 관복(冠服)을 청사(請賜)한 사실과 문무왕 4년에 부인 복식까지 당제(唐制)로 혁신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기마가 유행하였던 신라시대에 승마 시 착용하였던 당의 폐면용 쓰개인 먹리(幕羅)와 유모(帷帽)가 귀족사이에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짙다.²⁾ 그러나 문헌에서 그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은 논의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크게 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

그 후 여성의 폐면용 쓰개는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크게 성행하게 되었고, 그 기원을 서공(徐統)의 『선화봉사 고려도경(宣和奉使 高麗圖經)』에서 살펴보면 『고려부인들은 출입 시에 말과 복(僕)이 공급되며 몽수(蒙首)를 착용하였다』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몽수는 당나라의 폐면용 쓰개인 먹리의 유제로서 여성들이 외출 시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譯史)』에서도 『고려의 몽수와 조선의 너울은 모두 그 시원을 당의 먹리에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려시대의 몽수가 당의 먹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려는 일찍이 해상무역으로 번영하여 사라센과도 교역이 있었으며 사라센인들은 고려에 들어와서 벼슬도 하고 장사도 하며 서역계의 문화를 들여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서역계 여인들의 내의를 위해 머리를 덮고 눈만 내놓았던 풍속이 고려에 직수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

이러한 전래상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폐면용 쓰개인 몽수는 고려시대 전반을 통하여 사용되어졌고 그 값이 금 1근 값과 같을 정도로 비싸서 자연적으로 부유한 여성임을 과시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몽수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너울(羅兀)로 전래되면서, 한층 존자(尊者)의 복(服)으로서 중시되었으며, 주자학의 전래로 내외의 의미가 한층 강화가 되었다.⁵⁾ 주자학은 바로 송유(宋儒)의 남존여비 사상을 물고와 남녀 유별 강목을 내세워 여성을 규방에 유폐(幽閉)하기에 이르렀으며⁶⁾ 내의 생활을 함으로써 외간 남성으로부터 격리 시켰는데, 이는 고려시대에는 일부 여성

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하였으며, 상류층의 부인들이 왕족, 양반 부녀자들에게는 더 한층 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남동생에까지 내외법으로 대할 만큼 내외 의식이 철저했고 여성의 출입에는 많은 규제가 따랐기에 조선시대 여성들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부득이 나갈 때는 반드시 너울, 장옷, 처녀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야 하였다.⁷⁾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폐면용 쓰개를 종합하여 보면 착용시점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추측되며, 당의 먹리, 유모제에서 유래된 것이고,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상류층의 쓰개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너울·개두·면사·장옷·쓰개치마·차액·삿갓·건모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⁸⁾

2. 여성 폐면용 쓰개의 종류

1) 몽수(蒙首)

몽수는 정수리부터 땅에 끌릴 정도로 길고 검은 라(羅)로서, 고려시대에 사용된 쓰개로 귀부인들은 물론 비첩까지 상하 구별을 두지 않고 착용하였으나 그 사치스러움으로 부유한 가정의 여성임을 과시하는 쓰개로 혹은 사치를 좇는 여인들의 유행으로 착용되어졌다. 이는 조선시대에 행해진 엄격한 내외의 의미보다는 여인들이 멋이나 사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착용⁹⁾한 것을 알 수 있다.

2) 너울(羅兀)

너울은 고려 시대에 성행한 몽수의 유습으로 조선 시대에 와서는 내외가 중요시되었던 유교 사회 여인 외출용 특히 승마 시의 쓰개로서 다른 종류의 내외용 쓰개보다는 격이 높고 대표적인 쓰개이다.

너울은 너울립(羅兀笠)이라고 하는 립자(笠子)와 립자(笠子)에 드리운 얇은 천 즉 너울 드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합하여 너울이라고 하는데¹⁰⁾ 이는 조선조 여인의 관모 중 국초부터 국말까지 궁중양식 또는 반가양식으로 상류계급에서 존속해온 것으로 특히 궁중 여인들은 내전 거동 시와 능행 등의 외출 시 그리고 가례시(嘉禮時)와 국홀시(國恤時) 너울 착용이 일정한 제도로 명시되어졌다.

3) 면사(面紗)

면사는 너울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그러나 너울이 주로 기마 행차 시 착용되는 것에 비해서, 면사는 의례용 쓰개로서 착용되었으며¹⁷⁾ 그 주된 용도는 혼례이다. 특히 면사는 궁중 혼례에서 비빈(妃嬪), 숙의(淑儀), 공주(公主), 옹주(翁主)만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가장 정중하고 성스러운 표시였다.¹⁸⁾ 이러한 면사의 종류에는 면사, 겹 면사(袂面紗), 전 면사(前面紗)가 있으며, 색과 치수와 문양등으로 계급을 구분하였고, 신부의 얼굴과 몸을 가림으로써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보호하여 신부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의도에서 착용되었던 것 같다¹⁹⁾고 한다.

4) 장옷(長衣)

장옷은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대신 간편을 좇아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 착용된 쓰개류¹⁴⁾로 원래는 남·녀의 일상적인 포로 착용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자의 폐면용 쓰개 장옷으로 전개¹⁵⁾되는 복식으로서 조선말기까지 성행한 서민층 부녀자들의 쓰개이다. 색상은 노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주로 검은 초록색 계열을 사용하고 안은 자주색 계열로 댄 장옷은 젊은 여자들이 사용하였고, 나이가 든 부인들은 주로 백색을 착용하였다. 재질은 노소보다는 신분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는데 반가(班家)에서는 여름에는 모시, 평광주, 향라·올라, 등의 얇은 비단과 겨울에는 명주, 비단 등으로 방한용을 겸해 썼으며, 서민들은 주로 무명을 사용하였다.¹⁶⁾

5) 쓰개치마

쓰개치마는 치마 모양의 내외용 쓰개로 착용할 때에는 치마허리가 이마를 덮을 정도로 둘러쓰고 치마 끈을 한곳에 모아 잡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적어도 중종대 이후에 등장하여 너울 대신 반인 계급에서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하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¹⁷⁾

6) 천의(簾衣)

장옷을 지방에서는 천의(簾衣)라고도 하였으나 천의와 장옷은 그 형태가 다르다. 천의는 처네라고도 하고

서민층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의 하나로, 천의 착용 시 전면의 모습은 장옷과 비슷하나 장옷보다 길이가 짧으며 소매가 달려 있지 않다. 또한 숨을 두어 방한용으로도 사용하였고 서북지방에서 사용하던 '포데기', '뚜쟁이'도 천의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¹⁸⁾

7) 샷갓

샷갓은 겨울 외에 방랑객의 의장(衣裝)이나 서민층 부녀자들이 외출용으로 사용하였던 갈대로 만든 커다란 입모로, 종류에는 일반적인 샷갓, 방립(方笠)형 샷갓, 원정형 샷갓 등이 있다. 일반적인 샷갓은 갈대를 이용하여 정수리를 뽕쪽하게 하고 가장자리를 6각형으로 만들며 정수리 밑으로 미사리를 받쳐서 쓰도록 만든 립이다. 방립형 샷갓은 샷갓을 원형으로 하여 보다 진보된 립으로서, 가늘게 오린 대를 겹으로 하고 왕골로 안을 받쳐 만들었으며 꽃잎형의 가장자리를 한 샷갓이고, 원정형의 샷갓은 입모의 정수리가 둥근 형태의 샷갓일 것이라고 사려된다. 착용은 머리에 고정시켜 매어 쓰지 않고 손으로 샷갓을 쥐어 몸을 가리웠으며, 일반적인 샷갓은 흔히 갈대나 대를 엮어 만드는데 비하여 부녀의 내외용은 부들의 출기로 만들어 늘 샷갓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¹⁹⁾ 서북 지방에서는 방립형의 샷갓을 1930년대까지도 착용하기도 하였다.

8) 전모(氈帽)

전모는 부녀들이 외출 할 때나 말을 탈 때 쓰던 모자의 하나로서 대로 만든 살 위에 유지를 붙여 샷갓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크기는 어깨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표면 가장자리에는 나비와 꽃무늬, 수·복·부·귀(壽·福·富·貴) 등의 문자를 넣어 장식하였다.²⁰⁾

이것은 하류층의 쓰개로서 상류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외보다는 햇볕을 가리거나 땀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 차액(遮額: 가리마)

차액은 검은 색의 사각판을 머리에 인 듯한 두식²¹⁾으로 검은 비단이나 자색의 비단을 반으로 접어 두 겹으로 한 후 그 속에 두꺼운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것으로 이마를 가린다는 뜻에서 나온 명칭인 것 같다. 족두

리가 널리 쓰이기 이전까지는 상층까지 차액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족두리가 성행하면서부터는 특수계층의 여성 즉 의녀나 기녀에게만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고 점차 간소화한 형태를 띄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Ⅲ. 박물관 소장 유물의 현황 및 특징 고찰

9개의 박물관에 소장된 여성 폐면용 쓰개류 7종, 총 26점에 대하여 쓰개의 종류별로그 현황 및 특징을 형태 및 세부장식, 재질, 색상, 크기별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너울(羅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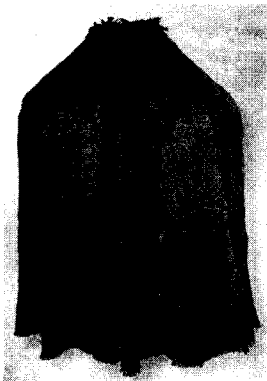
국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너울은 총 2점으로, 조선 초기에는 궁중과 양반계급 여인들이 사용하다가 국말에는 왕실 가례 시 또는 궐내에서 착용 한 것으로 색상과 재질, 장식으로서 착용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림 1]의 너울은 조선시대 일반인이 사용한 너울로는 유일한 유물로서, 유물의 착용자는 조선 인조 때 이조 참판을 지낸 정광경(鄭廣敬: 1586~1644)의 부인인 여흥 민씨(驪興 閔氏)이다. 민씨는 존자(尊者)의 복(服)인 흑라모(黑羅帽) 즉, 검정색 사경교라로 된 너울을 착용함으로써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물의 재질은 문양이 직조된 라(羅)로서 착용자가 바깥의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착용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특수한 직물로서 민씨 일가의 재력을 짐작케 하며, 너울 표면에 화려한 장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궁중에서 쓰여지는 너울보다는 간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유물인 [그림 2]의 유물은 궁중의 유물로서, 궁중에서의 너울 착용은 국초(國初)부터 국말(國末)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왔으며, 색상은 황색이다. 이 너울은 현재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도 많아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유물에 사용된 황색은 그 예가 문헌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제 22대 정조대왕 때 부친인 사도세자묘를 다녀오는 능행도에서 궁인이 착용한 모습이 보임으로서 황색 너울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석주선씨는 대궐 안에서는 황색 너울에 금박을 박아 썼다

〈표 2〉 박물관 소장 너울(羅兀)

구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그림 1]	창덕궁 박물관 [그림 2]
	형태	① 포대형 (布袋形) ② 모정에 3장의 화관	① 포대형 (布袋形) ② 모정에 3장의 화관
재질	사경교라 (四經交羅)	생모시 (苧)	
색상	黑色	黃色	
크기	입자를 썩우는 길이	24cm	26cm
	입자 밑으로 늘어지는 길이	44cm	56cm



[그림 1] 너울, 경기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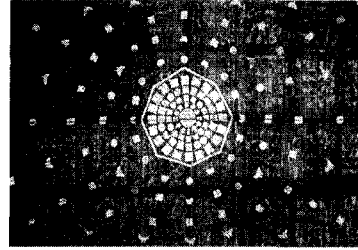
[그림 2] 너울, 창덕궁박물관

고 함으로써, 창덕궁 소장 유물인 황색 너울은 대궐 안에서 착용한 너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물의 입자이면(裏面)의 뎃살이 단청(丹青)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유니상궁”이라고 적혀있고, 재질은 생모시이나 눈이 위치하는 부분은 앞을 투시할 수 있도록 삼적 향라를 이용하여 만든 것과 너울 표면에 노란색 화문(花紋)을 사방 연속 무늬로 찍어 화려하게 장식한 것으로써 겉내에서 상궁들이 착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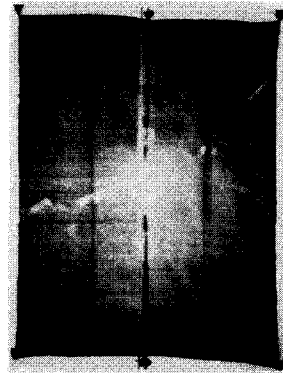
2. 면사(面紗)

면사로 보이는 유물은 고려대 박물관 1점과 이화여대 박물관, 담인 복식 미술관에 각각 1점씩 소장되어 있으나 고려대 박물관은 사정상 고찰할 수가 없어서 실측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그림 3]은 이화여대에 소장되어 있는 면사로서 가운데 팔각형 도안 안에 길상어문과 다양한 문양이 금박 되어 있다. 특히 10 종류의 문양이 16방향으로 퍼져 나가도록 전면에 고루 금박 되어 있는데 아마도 중심의 팔각이 머리 정수리에 오도록 썼을 것이라 사려된다. 금박의 문양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뜻하는 학(鶴)을 팔각의 중심에 놓았고 그 주위에 壽福, 康寧, 富貴多男, 萬壽無康의 문양을 금박 하였으며, 나머지의 문양으로 팔각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퍼져나가듯 하였다. 면사는 여성용 쓰개이면서 혼례에 사용된 점으로 보아 금박 문양은 장수와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뜻을 지닌 학, 박쥐문, 석류문, 동자문, 나비, 국화 문양 등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색 갑사(甲紗) 흘겹에 금박무늬가 화려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중궁(中宮)이나 빈궁(嬪宮)의 혼례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길이가 문헌상의 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법복에 포함된 면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림 4]의 유물은 담인 복식 미술관에 전시된 유물로서 민가에서 착용된 면사이다. 따라서 재질은 [그림 3]의 유물과 같은 흘갑사로 되어 있으나 색상과 크기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물의 색상은 궁중의 면사가 자색이었던 것에 비해 민가에서 사용된 검은 색을 띠고 있으며, 크기도 법복에 착용된 면사에 비해 작으며 장식 문양도 간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공주, 부마의 예복이 서민의 혼례복으로 허용된 것으로



[그림 3] 면사, 이화여대 박물관,
- 服飾(이화여대 박물관), P.65. -



[그림 4] 면사, 담인 복식 미술관, - 전시중-

〈표 3〉 박물관 소장 면사(面紗)

구분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그림 3]	담인 복식 박물관 [그림 4]
형태		① 직사각형 모양 ② 금박 무늬가 16방향으로 화려하게 장식됨	① 직사각형 모양 ② 네 모서리에 문양장식과 붉은 술이 달려있음
재질		흘갑사(甲紗)	흘갑사(甲紗)
색상		검은 자색(紫色)	검정색(黑色)
크기	너비	140cm	134cm
	길이	218cm	178cm

미루어보아 면사도 함께 허용된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실제 서민의 혼례식에 사용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²⁰⁾

3. 장옷(長衣)

장옷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내외용 쓰개류로서 조선 중기까지는 포로 입혀졌으나 후기에 오면서 내외용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개로만 사용된 것으로 개

화기 이후 지방에 따라서는 혼례복이나 수의로도 사용되었다.

[그림 5]에서 [그림 11]까지의 본 논문에서 고찰된 장옷은 조선시대 후기에 착용되어진 유물들로서, 내외용 쓰개로만 착용되어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형태적으로는 소매끝에 백색의 넓은 거들지가 달린 직배래의 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많은 점이 포의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걸깃, 안깃을 포함한 걸깃과 안깃이 차이를 보이는 포와는 달리 양쪽 깃이 모두 목판깃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여밈 형태도 맞여밈형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길에 이중으로 싹을 달고, 양옆에 부를 더해 전폭에 여유가 생김으로서 쓰개류로 사용할 때 벗어지지 않고 싸이게 되는 편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름은 앞 싹 끝에 마주 달아 장옷을 머리에 썼을 때 양손으로 잡기 쉽게 하고, 착용중 머리 기름이 옷에 묻지 않도록 머리 닿는 부분에 탄감을 대고 걸 것으로는 흰색 백비(背布)를 뒤통대에 중심으로 동그랗게 대어 동정에 연결하는 등 폐면용 장옷으로서 공통된 형태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물들은 세부적인 형태 장식, 재질, 색상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림 5]의 유물은 밀도면에 길과 같은 명주로 가는 선(纈)을 들렀으며, 장옷자락이 펠러지지 않도록 매듭 단추 2쌍을 달아 고정하였고, 순조의 3번째 공주인 덕은 공주(1822~1844)가 혼인할 때 가지고 간 장옷인 [그림 7]은 유난히 좁은 착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림 6], [그림 10]의 유물과 같이 자주색과 다홍색으로 색이 다른 옷고름을 두 쌍씩 양쪽에 달아 실용성과 아울러 멋을 강조하였다. 재질은 착용하는 계절에 따라 차이를



[그림 5] 장옷, 고려대 박물관,
-服飾類名品圖錄(고려대 박물관) P.79.-

보이고 있다. 본래 장옷은 포로서 방한용 목적이 우선시 되어 착용되었으나 점차 용도가 폐면용으로 변화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착용되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유물 재질이 명주로 만들어졌으나 [그림 6]과 [그림 7]처럼 장옷 재질이 얇은 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운 여름철에도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장옷이 착용되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과 [그림 8]의 직물 표면에는 정교하고 섬세한 원문이 직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유물들의 착용자들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반가(班家)의 여인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색상은 대부분의 장옷 유물들의 색상이 녹색류인데 반해 [그림 9] 유물은 미색을 띠고 있다. 이것은 다른 유물 착용자 보다는 보다 나이가 든 여인이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유물들이 대부분 녹색류인 점을 감안하면 나이든 여인들보다는 활동성 있는 젊은 여인들이 장옷을 외출 시 더 많이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천의(薦衣)

천의는 서민층의 부녀자들이 동절기에 방한용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속에 솜을 두어 만든 것으로 [그림 12, 13, 14]의 천의는 속에 솜을 두었으나 [그림 15]의 천의는 얇은 천으로 만들었다. 이는 천의가 방한용 목적으로도 착용되어지기도 하나 겨울이외의 계절에는 내외용 쓰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의의 형태는 펼쳐 놓았을 때는 머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 이마에 오게 하는 쓰개치마의 양식과 흡사하나 착용 시에는 앞에서 고름을 잡아 여미는 장옷과 매우 비슷한 형상이다. 단지 소매가 없고 복건과 같이 고름을



[그림 6] 장옷,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한국복식2천년(국립민속 박물관), P.86.-

달아 뒤에서 묶는 형식이 장옷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물은 다홍색류의 걸감과 감색류의 안감을 하고 있으나[그림 15]의 천의는 진 녹색의 길에 자주색 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착용된 장옷 색상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크기는 장옷에 비해 많이 단소해졌으나[그림 15]의 천의는 마치 장옷처럼 그 길이가 무릎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림 12, 13, 14]의 천의와 [그림 15]의 천의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아마도 서민층 부녀자들이 착용하던 장옷이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반가의 여인들이 착용하듯이, 천의도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반가의 여인들이 얇은 비단을 이용하여 금박과 동물의 발톱 등을 장식하여 거추장스런 장옷보다는 간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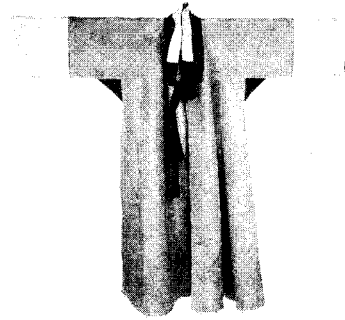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5. 샷갓

일반 샷갓은 서민 부녀자 층에서 착용되었으며, 샷갓을 쓰면 크고 깊어서 주위를 살필 수가 없고 겨우 땅을 내려다보며 걸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림 16]의 샷갓은 외형상 앞부분이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원형으로 파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여성의 외출용 쓰개라기 보다는 작업할 때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샷갓의 수가 적은 이유는 박물관에 소장된 많은 수의 샷갓 중 여성용 샷갓으로 분류된 샷갓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림 7] 장옷(덕온공주 유물),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冠帽와 首飾(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P.62. -



[그림 8] 장옷, 온양 민속 박물관, - 朝鮮時代의 冠帽(온양 민속 박물관), P.44. -



[그림 9] 장옷, 온양 민속 박물관 - 朝鮮時代의 冠帽(온양 민속 박물관), P.44. -



[그림 10] 장옷, 이화여대 박물관, - 服飾(이화여대 박물관), P.71. -



[그림 11] 장옷, 오윤대 한국 순교자 기념관, - 韓國의 美(국립중앙박물관), P.31 -

〈표 4〉 박물관 소장 여성의 폐면용 장옷(長衣)

구분	박물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숙명 여대 박물관	세종대 박물관		온양민속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오류대 한국 순교자 기념관 [그림 11]	
		I [그림 6]	II [그림 7]		I	II	I [그림 8]	II [그림 9]	I [그림 10]	II	III		
형태	소매 모양	직배래	직배래	등근형 착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직배래	
	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동정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넓다	
재질	겉감	명주	영초 (伶縮)	항라	명주	사(紗)	사(紗)	명주	명주	명주	명주	명주	
	안감	명주	명주	모시(苧)	명주	사	사	명주	명주	명주	명주	명주	
색상	소매	녹색	두록색	녹색	녹색	남색	남색	두록색	미색	녹색	녹색	녹색	연두색
	앞·뒤길	녹색	두록색	녹색	녹색	남색	남색	두록색	미색	녹색	녹색	녹색	연두색
	무	녹색	두록색	녹색	녹색	남색	남색	두록색	미색	녹색	녹색	녹색	연두색
	깃	자주색	두록색	자주색	다홍색	자주색	다홍색	자주색	자주색	자주색	자주색	·	다홍색
	거들지	백색	백색	백색	백색	옥색	옥색	백색	백색	백색	·	·	백색
	고름	자주색	자주색 다홍색	자주색 다홍색	다홍색	자주색	다홍색	자주색	자주색	자주색 다홍색	자주색	자주색	다홍색
크기	결마기	자주색	두록색	자주색	·	·	·	자주색	자주색	자주색	·	·	다홍색
	길이	120cm	116cm	111cm	123cm	147cm	147cm	148cm	149cm	116.6cm	111cm	117cm	135cm
	화장	71cm	68.5cm	69cm	85cm	76cm	75.5cm	86cm	84cm	76.7cm	69.5cm	75.5cm	82.5cm
	품	47cm	51cm	42cm	57cm	53.5cm	53cm	·	·	·	51cm	48cm	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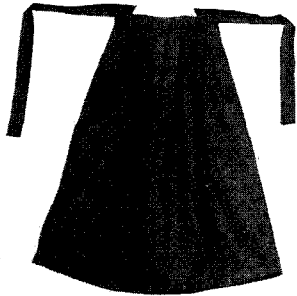
〈표 5〉 박물관 소장 천의(簾衣)

구분	박물관	온양민속 박물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그림 14]	숙명여대 박물관 [그림 15]
		I [그림 12]	II [그림 13]		
형태		① 부녀의 치마양식 ② 앞 양단(兩端)에 끈을 달아 묶어 착용	① 장옷의 변형(變形) ② 머리에 쓰고 이마에서 목부분으로 끈을 묶어 사용	① 장옷의 변형(變形) ② 깃의 양쪽에 끈을 달아서 머리에 쓰고 뒤 목부분으로 끈을 묶어 사용 ③ 양옆에 큰 쇠를 담	① 장옷의 변형(變形) ② 끈이 없고 머리에 뒤집어서 내려뜨림 ③ 깃에 동물의 발톱이 달려 있음
재질		명주	명주	명주	사(紗)
색상	깃	가지색	감색	다홍색	자주색
	겉감	가지색	자주색	다홍색	진녹색
	안감	감색	감색	감색	없음
크기	위너비	30.6cm	27.5cm	75.5cm	·
	아래너비	75.4cm	96.5cm	96.5cm	·
	길이	81.6cm	79cm	79c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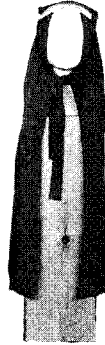
6. 전모(氈帽)

[그림 17]의 전모는 평평한 모정에 맑은 아취와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길상의 꽃이며 절조의 상징인 국화꽃을 만들어 붙였으며 전모 표면에는 사방으로 나비 문양을 그려서 장식을 하였다. 흔히 여성용품에서 나



[그림 12] 천의, 온양 민속 박물관,-
朝鮮時代의 冠帽(온양 민속 박물관),
P.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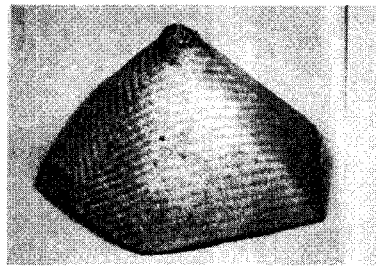
[그림 13] 천의, 온양 민속 박물관,-
朝鮮時代의 冠帽(온양 민
속 박물관), p.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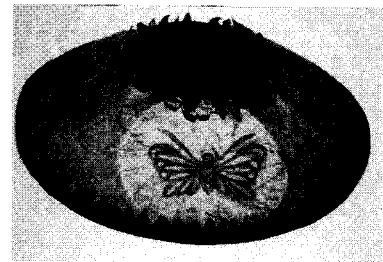
[그림 14] 천의,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冠帽와 首飾(석주선기념 민속박물
관), P.64.-



[그림 15] 천의, 숙명여
대 박물관, - 전시중 -



[그림 16] 삿갓, 석주선기념 민속박물
관,- 冠帽와 首飾(석주선기념 민속박물
관), P.74.-



[그림 17] 전모, 고려대 박물관.-服飾類
名品圖錄(고려대 박물관) P.148.-

비문양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는데, 동양에서의 나비 문양은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에서 유래하여 남녀 화합의 상징과 자유로운 연애, 즐거움의 상징을 뜻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모를 착용하였던 하류 계층의 여인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그림 18], [그림 19]의 전모도 [그림 17]의 전모 형태와 같은 삿갓모양이나, 장식으로는 앞의 전모와는 달리 평평한 모정에 태극문양을 그리고, 툇니 테두리를 돌렸으며, 가장자리에 박쥐·나비·수·귀·부·산 등 덕담으로 얽힌 문양을 색지로 붙이고 한지를 들기름에 절여 만들었다. 박쥐는 편복문(蝙蝠紋)으로 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박쥐 두 마리를 쌍으로 배치한 무늬는 복이 겹쳐 들어오라는 염원을 담고 있으며 행

복과 장수, 다산을 의미하여 여인들이 사용하는 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안에는 미사리로 고정시키고 자주색 끈을 양편에 달아 턱밑에서 매어 고정시켰다.

7. 차액(遮額: 가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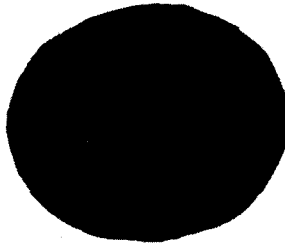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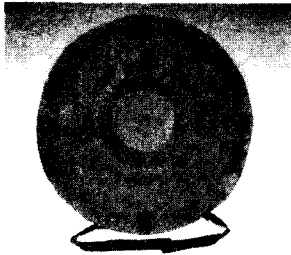
차액 즉 가리마인 [그림 20]은 검은색 사각판 위를 화

<표 6> 박물관 소장 삿갓

구분	박물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그림 16]
형태		① 가장자리 6각으로 되어있음 ② 이면에 미사리 부착
재질		참대
색상		황토색
크기	높이	35cm

〈표 7〉 박물관 소장 전모(幀帽)

구분	박물관	고려대 박물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그림 17]	I [그림 18]	II [그림 19]
형태		① 삿갓 모양 ② 평평한 모정에 국화(菊花)를 만들어 붙임 ③ 표면에 사방으로 나비문양을 그림 ④ 안은 미사리로 고정	① 삿갓 모양 ② 평평한 모정에 태극무늬와 톱니 테두리, 박쥐문양 두름 ③ 가장자리에 덕담과 나비, 문양을 색지로 붙임 ④ 안은 미사리로 고정 ⑤ 자주색 끈 양쪽에 답	① 삿갓 모양 ② 평평한 모정에 태극무늬와 톱니 테두리 두름 ③ 가장자리에 덕담과 나비, 문양을 색지로 붙임 ④ 안은 미사리로 고정
재질		기름에 절인 종이	기름에 절인 종이	기름에 절인 종이
색상		황토색	황토색	황토색
크기	지름	36cm	68cm	66cm
	높이	9cm	18cm	19.5cm



[그림 18] 전모,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冠帽와 首飾(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P.61. -

[그림 19] 전모,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朝鮮時代의 冠帽(온양 민속 박물관), P.43. -

[그림 20] 차액, 숙명여대 박물관, - 한국복식2천년(국립민속 박물관), P.50. -

러한 보석으로 한껏 치장한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쓰던 쓰개의 일종으로서 주로 궁방의 무수리, 의녀(醫女), 침선비(針線婢)와 유모, 기녀 등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착용하는 관모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선행연구²⁹⁾에 의하여 17세기 초 가리마는 반가 여성들의 성장용 머리쓰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졌다. 따라서 본 유물은 재질과 색상으로는 내의녀의 의녀가 착용하는 흑단(黑段) 가리마이나, 그 장식의 화려함으로 보아 반가 여성의 성장용 가리마일 가능성도 배

제할 수가 없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유교 숭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규범과 내외법으로 그 착용이 절정을 이룬 여성 폐면용 쓰개에 대하여 박물관에 소장된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이론적 작업과 실태적 작업을 병행하여 고찰하였다. 유물의 현황은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복원품 및 박물관 도록,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유물의 형태, 재질, 색상, 크기 등을 분석하여 쓰개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1. 우리나라에 소재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도록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 폐면용 쓰개 유물은 총 26점으로서 너울 2점, 면사 3점, 장옷 12점, 천의 4점, 삿갓 1점, 전모 3점, 가리마 1점등이다. 문헌상으로는 쓰개치

〈표 8〉 박물관 소장 차액(遮額)

구분	박물관	숙명여대 박물관
		[그림 20]
형태		① 검은색의 사각판 모양 ② 사각판 위는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
재질		명주
색상		검정색

마를 포함하여 총 8종의 폐면용 쓰개가 존재하였으나 폐면용 쓰개의 대표적인 쓰개치마가 단 한 점의 유물도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도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물의 존재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2.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성 폐면용 쓰개의 특징으로 첫째, 너울은 다른 쓰개에 비하여 한층 격이 높은 상류 사회의 쓰개로서 다른 폐면용 쓰개보다 완벽하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면사는 '면사포'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화려한 금박 문양을 장식하여 외관상으로도 상류층이 착용하였음을 암시하며, 아울러 내외용보다는 궁중과 민가에서 혼례용으로 더 많이 착용되어 신부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세 번째, 장옷은 원래는 남녀의 일상적인 포였으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서민 여성의 폐면용 쓰개로 전개된 복식으로서 가장 많은 수의 유물이 보이고 있어 여인들의 외출 시 가장 널리 착용된 쓰개라 짐작되어진다. 그러나 장옷도 형태는 같지만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 착용자의 신분을 드러내 주고 있다. 네 번째로 천의는 서민층 여인들이 숨을 두어 방한용과 폐면용을 겸해 썼던 쓰개로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 말기에 와서는 장옷과 같이 반가의 여인들도 편리함을 좇아 비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천의를 만들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샷갓은 서민 여성의 쓰개로서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되면서 손쉽게 폐면의 역할을 한 쓰개이고, 전모는 하류층의 쓰개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어 특히 멋을 추구하는 특수계층의 여성 즉 기생들이 착용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마지막으로 차액 즉 가리마는 여성 폐면 관습과는 무관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쓰개로서 일반 부녀에게는 금지되고 의녀나 기녀에게만 착용이 허락되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였다.

3. 조선시대에 착용되어진 여성 폐면용 쓰개는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엄격히 형태와 재질, 색상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쓰개로서 착용자의 신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4.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성 폐면용 쓰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 조선 후기에 만들어져 착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애리, 너울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향선, 조선시대의 내외용 쓰개류에 관한 고찰,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배혜경, 조선왕조시대 여인의 내외용 쓰개에 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순성, 조선왕조시대 여성의 내외용 쓰개류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진경, 장옷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홍나영, 여성 쓰개(蔽面)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2) 김동욱, 증보 한국복식사 연구, 아세아 문화사, 35, 1982.
- 3) 김애리, *op. cit.*, p. 10.
- 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210, 1975.
- 5) 이능화,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 學文閣, 234, 1960.
- 6) 전혜숙, 조선왕조 사회의 내외용 쓰개류의 고찰,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1986.
- 7) *Ibid.*, p. 9.
- 8) 홍나영, *op. cit.*, p. 42.
- 9) 서경(徐鏡), 宣和奉史 高麗圖經, 卷第十二 貴婦, 1123.
- 10) 김애리, *op. cit.*, p. 24.
- 11) 홍나영, *op. cit.*, p. 169.
- 12) 강언아, 면사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1984.
- 13) 강언아, *op. cit.*, p. 44.
- 1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430, 1975.
- 15) 김미자, 두루마기(周衣) 변천(變遷)에 관한 연구, 서울 여대 농촌발전연구서, 제 5집, 117, 1983.
- 16) 백영자, *op. cit.*, p. 298.
- 17) 강순제, 내외용 쓰개류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2), 283, 1978.
- 18) 전혜숙, *op. cit.*, p. 41.
- 19) 최남선, 조선상식 풍속편, 동명사, 115, 1948.
- 20) 고복남, 한국전통 복식사연구, 일조각, 482, 1993.
- 21) 백영자, *op. cit.*, p. 298.
- 22) 석주선, 한국복식사, 普賢齋, 64, 1971.
- 23) 김애리, *op. cit.*, 73-79.
- 24) 강언아, *op. cit.*, p. 34.
- 25) 이은주,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33, 2001.